



LENT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여정

LENT

히브리서 12장 1~3절

1 이렇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고난 속에서 품는 거룩한 마음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에게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곤 합니다. 물론 모든 삶이 고난을 극복하고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삶은 어쩌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탄식”(롬8:22)하는 상황에 가까울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자체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고난을 속량해 가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신앙인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 세계의 어두움을 속량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이기에 품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이란 하나님 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요,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고난 자체를 찬양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LENT

은 최악의 질서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고, 사람들의 미움이 쏟아질 때 참아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얹어매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 며”, “믿음의 근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2절)보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명은 고난과 함께합니다. 고난이 없는 생명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의미와 가치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맥없이 눌러버리는 것은 죽은 것이지만, 역경을 뚫고 싹을 틔우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역시 고난이 없는 온실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하나님 나라는 “악으로부터 분리된 선의 나라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나라”라고

LENT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고난 너머 온 세상의 속량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이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어 올바르게 살아가게”(11절)하는 길입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손을 들고 무릎을 세워 바른길을 걸어 가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오히려 거룩한 꿈을 품고, 생명의 기운으로 고난의 세계를 속량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LENT

기도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근원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죄악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눈으로 보다오르는 건강한 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동부선린교회

담임목사 곽 선 근

천현성전 | 12956 하남시 하남대로654번길 22-10
새능성전 | 13025 하남시 산곡동로86번길 42
사무실 031)793-3179 팩스 031)793-3172
www.dbsunlin.com



홈페이지

www.dbsunlin.com



YouTube

동부선린교회

검색



유튜브